

광주상의 “정부 유보소득 과세안 철회하라”

중기·주택·건설사업자 다수피해 우려
“업종·규모별 과세대상 선별 적용해야”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과 건설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며 ‘특정 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세’ 신설 법안철회를 국회와 정부 등에 공동건의하고 나섰다.

20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대구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특정 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세’ 신설 법안 철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건의했다.

정부 유보소득 과세안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간 차이에 따라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다.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회사 오너 일가(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는 배당가능 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을 경우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특히 주택·건설사업자 다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두 상회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또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갖고 있어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주택·건설업은 업종의 특성상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 대부분이 개인 유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인 통과시 주택·건설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회사를 수십 년 간 운영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단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

로 유보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보소득세는 기업의 미 실현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만약 과세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기업들은 유보소득세 부담을 이유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여건도 악화돼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유보소득세가 신설된다면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업종과 규모별로 과세 대상을 선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나라 기자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힐라 메가샵’ 신규 오픈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이 ‘힐라 메가샵’을 신규 오픈했다.

20일 롯데아울렛에 따르면 광주 최초로 메가샵으로 조성된 ‘힐라’는 스포츠 라인과 더불어 퍼포먼스 캐주얼, 레트로 헤리티지 아이템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특히 감성을 자극하는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 기존 매장대비 레트로 헤리티지 아이템이 50% 이상 보강됐다.

/박선옥 기자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이 ‘힐라 메가샵’을 신규 오픈했다.

/롯데아울렛 제공

광주은행 ‘무등산 수박 살리기’ 동참

1천만원 상당 수박 구매
재배농가 어려움 해소

광주은행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민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의 명물 무등산수박을 살리기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수박을 구매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광주 북구청에서 송종욱 은행장과 문인 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산 수박 살리기 운동’ 구매 행사를 가졌다.

생산인력 노령화 및 생산량 감소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무등산 수박은 매년 판매량이 줄고 있어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까지 겹치면서 수확에 어려움을 겪었다.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 북구청에서 송종욱 은행장과 문인 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산 수박 살리기 운동’ 구매 행사를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무등산 수박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매년 무등산 수박을 구입하고 있으며, 올해도 1,000만원의 수박을 구입해 임직원들과 함께 무등산 수

박 살리기의 의미를 되새겼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무등산 수박 살리기

■ 로또 6/45(929회)	
당첨번호	7, 9, 12, 15, 19, 23 보너스 4
등 위	당첨금액
1등	1,308,035,157원
2등	38,330,701원
3등	1,151,947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 연금복권 720+(20회)	
등 위	당첨번호
1등	1조 819605
2등	각조 819605
3등	각조 19605
4등	각조 9605
5등	각조 605
6등	각조 05
7등	각조 5
보너스	각조 555687

운동’에 참여했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전남TP,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 박차

순천시·서울대와 협약...실증화 지원·전문기업 육성

전남테크노파크가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순천시, 서울대학교 마그네슘기술혁신센터와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남도와 순천시, 전남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총 사업비 155억원 규모의 수송기비용 마그네슘 소재 실증기반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전남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순천시의 정책지원과 함께 전남테크노파크는 순천에 소재한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에 구축된 마그네슘 기반지원시설을 활용해 실증화지원 및 전문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기반지원시설을 보유한 서울대 마그네슘기술혁신센터는 어려운 기술영역에 협업하고 그동안 쌓아온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증화 연계협력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체결을 한 서울대 마그네슘기술혁신센터는 그동안 국내 마그네슘산업을 대표해 기술개발을 주도해 왔으며, 20여건의 마그네슘 관련 특허와 국내외 연구소와의 긴밀한 업무협력 유지하고 있다.

/박선옥 기자

전남농관원,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제수용·선물용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라지, 고사리, 꽃감 등 제수용품과 이 시기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 등 소비자들이 식별정보를 통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각 품목의 외형과 특징을 제공했다.

품목별로 보면, 간도라지의 경우 국산은 길이가 짧고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아 일부가 남아 있으며, 깨물어 보면 부드러운 느낌으로 쓴맛이 거의 없다. 중국산은 길이와 크기가 다양하고 껍질이 잘 벗겨

져 깨끗한 편이며 깨물었을 때 질긴 느낌과 쓴맛이 강하다.

국산 고사리는 줄기 아래 단면이 불규칙하게 잘려있고 먹을 때 줄기가 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산은 줄기 아래 부분이 갈로 잘려 단면이 매끈하며 질긴 식감이다. 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은 길이가 길고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며 등심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산은 삼겹살 길이가 짧고 절단면 모양이 일정하며 등심이 거의 붙어 있지 않다.

품목별 원산지 식별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선옥 기자



대한민국프로골프협회
인증 골프연습장

도심속에서 만나는 명품 골프연습장

중흥 레포트스 클럽





중흥 레포트스클럽

JUNGHEUNG LEPORTS CLUB

- 도심 속에서 만나는 명품 골프연습장
- 넓고 쾌적한 60개의 여유로운 타석
- 편리하고 과학적인 스마트 시스템
- 쾌적한 야외 PAR 3홀 체계적 운영



쾌적한 타석



야외 PAR 3홀



3층 60타석

광주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산44번지 062)655-1313
남약지점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로 250번길 37 061)287-0750